

(구 무 - 18)

① 제목 : 인삼의 Codex 규격화 현황과 전망

② 발표자 : 이호준

③ 소속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산업지원연구본부 표준화연구팀

④ 초록 :

Codex는 1962년도에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목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서 현재 167개국이 회원국이며 의사결정기구로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가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일반과제분과위원회(9개), 식품별분과위원회(11개), 정부간특별작업단(3개) 및 지역조정위원회(6개)로 이루어져 있다. Codex의 주요업무는 식품의 생산, 가공처리 유통, 소비 및 교역상 『식품위생, 규격에 관한 국제적인 기본규약』을 제공하며, Codex 기준은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으로서 통상적으로 회원국 등의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나 식품교역시에는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준으로 적용된다. 2002년 말 현재 기준으로 식품 및 일반규격(Standard and Standard Methods) 217건,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47건, 지침(Guideline) 40건, 잔류허용기준 3건 및 기타문서(Advisory and other texts) 7건 등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의사결정 및 규격설정은 만장일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따르며, 의사결정 절차는 통상 8단계로 이루어지나 긴급시 5단계로 기준이 제정된다.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는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을 통한 해외시장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994년 추진을 시작하여 2003년 현재 규격화 4단계 추진중이다. 추진과정은 1995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전통식품 국제규격화 실무작업단을 설치 운영하여, 1995~1997년 규격화 필요성 및 규격초안을 작성, 2000년 Codex 사무국에 규격화 필요성 및 규격초안 제출, 2001년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규격화 추진(1단계)되어 규격초안에 대한 사무국 편집(2단계) 및 회원국의 회담과 의견수렴(3단계)을 거쳐 2002년 제21차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에서 4단계 심의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분과위원회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2003년 제26차 Codex 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⑤ 참고문헌

- Codex Procedural Manual(12th edition)

⑥ 전화 : 031-780-9220

팩스 : 031-780-9264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 46-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산업지원연구본부 표준화연구팀

E-mail : hjlee@kfri.re.kr